



내년 설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내년 설(2월7일)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려는 시민들이 13일 광주역 매표 창구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승차권 예매는 정오에 끝났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농촌형 역 모기지론’ 도입 급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중신형 역모기지론)이 시행 5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연령 및 대출 규모 등 가입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되면서 정착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데다 농가의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농촌형 주택연금 상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을 시판한 이후 너댓달 전화 및 방문상담 건수가 1만건에 달할 만큼 노후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상품의 경우 가입 조건 자체가 농촌 고령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택연금이 도시주택에 초점을 맞춰 설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완

## 저가 농촌주택 노후 생활자금 도움 안돼 고령화 추세... 農地 담보로 혜택받게 해야

농촌은 월수령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농촌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는 평균 3천만~5천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농촌 주택만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주택 담보가치가 낮아 만족할 만한 노후자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5천만원의 농촌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만 65세 노인은 매달 15만1천원을, 70세는 18만8천원을 받게 된다. 이는 농촌지역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노후자금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따라 한국은퇴자협회 등에서는 농촌의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상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을 내놓고 있다.

농촌형 주택연금은 현행 주택연금 상품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지를 담보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농촌주택 5천만원과 농지 1억원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51만원 이상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촌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데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농촌형 주택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현재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33만8천509명으로, 전체 인구(180만6천명)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 ▲주택연금=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또는 주택 이전까지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주는 역모기지론 상품.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 상품과는 달리 종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현재 전남의 농가 인구는 46만1천36명으로, 전체의 25.5%에 달할 만큼 농촌의 인구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4%인 6만6천515명으로 파악돼 농촌형 주택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공기업 민영화 국민주·황금주 도입 검토”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 방식, 황금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문제, 공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황금주’(goldenshare)는 정부가 민간에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주요 자산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는 지분

3개 공기업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분야 네트워크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금산분리, 경제력 집중, 공공요금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이나 지역주민, 소비자 등의 의견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펀드 몰린 돈 금리 8% 돼야 은행 간다”

## 삼성증권 분석 보고서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중자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저금리와 증시호황으로 은행권에 고여있던 자금이 대거 투신권으로 유입됐으나 최근 금리가 6%(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대로 올라가면서 자금흐름의 역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13일 분석보고서에서 “금리가 8%대로 진입하면 자금의 흐름이 펀드에서 예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어느 선까지 오르면 시중자금이 은행

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 자금 이동의 사례와 주식의 기대수익률, 미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황 연구원은 “저축성예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인 1996~2003년 평균 은행예금금리는 7.95%였고, 실질금리는 2.40%였다. 2005년 6월 이후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최근에는 2%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축성예금은 이전처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식형펀드에서도 자금 이탈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은행예금금리의 기대치

는 7.95% 이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관련해 그는 “2000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주식의 기대수익률 평균은 12.11%로 조사됐다. 만약 11월말 코스피지수인 1,906.00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 12.11%를 반영해 12개월 예상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산출한다면 2,136.82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는 “우리 리서치센터에서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5.50%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기대수익률 12.11%를 형성하는 무위험자산 수익률은 6.61%로 추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광양제철소 청정 설비 구축 1,760억 투입 4개 소결공장 대상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천760억원을 들여 4개의 소결공장을 대상으로 청정설비를 설치하고 14일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환경사업은 포스코 최대의 환경투자사업으로 국내 대기환경분야 전문기업인 한국코트렐과 포스코가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3단계 처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특히 독창적으로 개발한 탈황기법을 활용하고, 여과집진기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질산화물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촉매를 활용하는 단계를 거치는 일관 배가스 청정설비를 구축했다.

이번에 준공된 환경설비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을 8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집진필터를 이용해 극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다른 제철소의 소결공장 환경관리에 벤치마킹 모델이 될만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소결공장은 크기가 작은 가루형태의 철광석을 가공해 큰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로, 소결청정설비는 대규모 투자비와 운영비로 인해 일본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 500여개 공장에만 설치돼 있다. 이중 포스코를 제외하고 청정설비를 설치한 곳은 38개소에 불과하다.

이번 투자사업을 통해 포스코는 전체 9개의 소결공장 중 6개 대형공장에 청정설비를 갖추게 됐으며 향후 나머지 3개 소결공장에 청정설비를 갖출 계획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철강사’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시중은행 적금 금리 잇따라 5%대 진입

투자상품으로 예금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정기예금 특판에서 적금으로 확대되며 적금금리가 잇따라 5%대로 올라갔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주중 적금금리를 0.9%포인트 큰 폭으로 인상해 5%대로 높일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11일부터 적금금리를 일제히 0.4%포인트 인상, 3년 이상 정기적립식 ‘퍼스트가계적금’에 대해 연 5.0%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조만간 적금금리를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우 사랑 대축제

## 생산농가-농협 오늘부터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예로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우농가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남도내 축협 32개 판매장과 목포유농센터에서 ‘대한민국 넘버 원 명품 한우사랑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차가운 겨울에 더욱 그리워지는 고품질을 위한 사골과 부위별 한우고기가 10% 이상 할인 판매되며 명품 한우고기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의료가기 개발 협약

## 광주 과기원 등 6개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소장 이종민)는 13일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의료가기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독일 쿼림메드(Qualimed)사, amg 코리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나노생물방재실용화센터, 장성군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5개 기관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장성군은 공동연구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레이저 연구소로 손꼽히는 고등광기술연구소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펄초초 레이저를 이용한 ‘차세대 스텐트 제조기술 개발’ 및 ‘차세대 혈관조영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칙외선 물리치료 발암예방! 인기 하터데로 별음이 있습니다.

원칙외선 프라아임 항암예방! 혈액 조질과 된거리 입세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본래 소용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日食 미도 확장개업**

조용한 심플해추산 고객님께 있어 감사드립니다. 개업15주년을 맞이하여 할인 이벤트로 축하합니다. 특별하는 시식도 23등 확장개업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한계장은 다들 드르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체 20석, 50석 가능 ●통사주차 50대 가능

무등산업 T. 062-234-0001, 228-0106